

6모 대비 SH05 모의평가 해설지

공통 1~34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1 ③	35 ①	35 ④
2 ⑤	36 ①	36 ⑤
3 ④	37 ①	37 ③
4 ②	38 ⑤	38 ④
5 ③	39 ③	39 ⑤
6 ①	40 ③	40 ③
7 ④	41 ④	41 ③
8 ⑤	42 ②	42 ③
9 ②	43 ③	43 ③
10 ④	44 ②	44 ④
11 ②	45 ④	45 ⑤
12 ⑤		
13 ⑤		
14 ②		
15 ③		
16 ②		
17 ④		
18 ①		
19 ⑤		
20 ⑤		
21 ⑤		
22 ③		
23 ②		
24 ①		
25 ④		
26 ⑤		
27 ⑤		
28 ①		
29 ⑤		
30 ⑤		
31 ③		
32 ④		
33 ①		
34 ⑤		

예상 1컷: 화작 87점 / 언매 84점

연계내역

왕필과 광상의 사상	수특 독서 223p
거시 경제 이론의 변천 및 IS-LM과 IS-MP 모형 비교 • 분석	수특 독서 122p
블록체인 의 샤딩 기술	수특 독서 218p
김수영 - 그 방울 생각하며	수특 문학 96p
고정희 -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수특 문학 319p
채만식 - 치숙	수특 문학 173p
이진유 - 속사미인곡	수특 문학 67p

1번

③ 2문단에 따르면 정교화 추론은 응집성 추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즉 독자는 대명사의 지시 대상이나 문장 간 인과 관계 등을 파악하는 응집성 추론을 통해 글의 국소적 연결을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글 이면의 의도나 전체 의미망을 파악하는 정교화 추론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응집성 추론 없이 정교화 추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1문단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에 생략된 의미를 채워 넣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응집성 추론에 실패하면 독서의 흐름이 중단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정교화 추론은 독자의 인지적 자원이 크게 요구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인물의 심리를 유추하는 것은 정교화 추론의 예이고, 정교화 추론은 모든 독서 상황에서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번

⑤ 3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초점화는 독자가 독서 목적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한 정보에 인지적 자원을 집중하고, 무관한 정보의 처리를 억제하는 기제이다. 초점화의 대상이 된 정보에는 인지적 자원이 집중되므로 정교화 추론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고, 이는 상황 모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초점화의 대상에 새롭게 편입된 정보가 정교화 추론을 거쳐 상황 모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① 초점화는 정보의 객관적 중요도에 따라 주의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 목적과의 관련성에 따라 주의를 할당하는 기제이다.
 ② 초점화는 응집성 추론의 실패로 중단된 독서 흐름을 복구하기 위한 기제가 아니다.
 ③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면 초점화의 대상을 유연하게 수정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초점화된 정보라 하더라도 국소적 연결이 난해할 경우 응집성 추론에 인지적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할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 자원의 소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번

④ 지문에 따르면 응집성 추론은 문장 내에서, 혹은 문장이나 문단 간의 의미적 공백을 메워 글의 국소적인 연결을 돕는 과정이다. 특히 지문은 문장 내외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응집성 추론의 예로 제시한다. 반면 정교화 추론은 응집성 추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의 배경지식을 개입시켜 글 이면의 숨겨진 의도나 글 전체의 의미망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보기>의 문장 3은 여성들이 기존 복식의 형태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하지가 분리된 활동복을 채택했다는 내용이고, 문장 4는 바지를 입은 여성들이 이전보다 더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문장 3과 문장 4를 연결하여 '복장 형태의 변화 → 이동 범위 확장'이라는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문장 간 의미 관계를 배우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는 상황 모델을 구축하는 정교화 추론이 아니라 응집성 추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① 지문에 따르면 초점화에서 배제된 정보라 하더라도 글의 맥락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응집성 추론은 작동한다. 따라서 A가 문장 1과 문장 2를 초점화 대상에서 배제했다라도, '이것이 안전 자전거를 가리킨다는 점이나 구동 방식과 균형 유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최소한의 응집성 추론은 일어날 수 있다.'
 ② 초점화는 독자가 독서 목적에 따라 특정 정보에 주의를 할당하는 전략이다. A의 독서 목적은 '자전거의 발달이 여성의 사회 진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안전 자전거의 구조 자체를 설명하는 문장 1, 2보다 여성의 복식 변화와 이동 범위 확장을 다루는 문장 3, 4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초점화 전략에 해당한다.
 ③ 지문에 따르면 초점화된 정보라 하더라도 글의 국소적 연결이 지나치게 난해하면 독자는 응집성 추론에 인지적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하게 되고, 이 경우 정교화 추론의 단계로 진입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A가 문장 3을 초점화했다라도 '형태적 제약'과 '하지가 분리된 활동복' 사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데 인지적 자원을 지나치게 소모했다면 정교화 추론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

⑤ 문장 4에는 여성들이 더 먼 곳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동 범위 확장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글에 명시된 정보와 독자의 배경지식을 결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정교화 추론에 해당한다.

4번

② (가)는 후한 말 이후 명교의 정당성이 흔들린 상황에서 왕필, 혜강, 광상이 명교와 자연의 관계를 각각 다르게 파악한 내용을 제시한다. (나)는 송대 주희가 예와 제도의 근거를 무나 만물의 자발적 변화가 아니라 유가적 도덕 원리인 이에서 찾았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가)는 명교와 자연의 관계를 달리 파악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나)는 예와 제도의 근거를 유가적 도덕 원리의 틀 안에서 재구성한 내용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나)는 예와 제도의 형식이 관습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다. 관습화된 예가 그 근거인 이를 잃으면 도덕 원리의 실현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할 뿐이다.
 ③ (나)는 제도의 근거를 자연의 자발적 질서 속에서 찾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주희는 예와 제도의 근거를 보편적 도덕 원리인 이에서 찾는다.
 ④ (나)는 예와 제도가 현실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된 배경을 밝히기보다, 예와 제도가 관계 속에서 마땅함을 구체화하는 방식과 그 근거를 설명한다.
 ⑤ (나)는 예와 제도의 성격을 도덕 원리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와 제도를 도덕 원리인 이가 현실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설명한다.

5번

③ 혜강은 명교를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허위적 가식으로 규정하고, 인위적인 도덕 규범의 구축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성정에 따를 것을 지향했다. 이는 명교와 자연을 대립적 관계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혜강이 도덕 규범이 자연적 근거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왕필처럼 명교가 자연에 연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 가깝다.

- ① 왕필은 만물의 본체를 특정한 형체가 없는 무로 규정하고, 무의 상태를 자연이라 파악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왕필은 현상계의 모든 사물과 제도가 무에 바탕을 두고 성립한다고 보았으며, 통치자가 무위를 체득하여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다.
 ④ 광상은 군신과 부자의 위계를 타고난 분의 필연적 발현으로 보았고, 명교를 자연의 양상으로 긍정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광상은 무가 사물을 낳는다는 발생론적 구도를 거부하였으므로, 만물의 질서를 초월적 본체의 작용으로 설명하는 전제를 부인했다고 볼 수 있다.

6번

① ㉠ '마땅함'은 인간이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 실현해야 할 도리이다. 이는 관계 밖에서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관계의 성격 속에서 분별되어야 한다. ㉡ '수양'은 기질의 치우침과 사욕을 바로잡아 이가 행위와 관계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은 관계 속 주체에게 요구되는 바이고, ㉡은 그것이 행위로 옮겨질 때 행위 주체의 조건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② ㉠은 이가 취한 구체적 형식 자체라기보다, 관계 속에서 분별되어야 할 도리이다. 또한 ㉡은 형식을 보존하는 일이 아니라 기질의 치우침과 사욕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③ ㉢은 정해진 예의 형식을 반복하거나 실천하는 데 주력하는 일이 아니다.
 ④ 관계의 성격에 따라 ㉠의 내용이 달리 드러나는 것은 이일분수의 논리와 관련된다. ㉡은 그 조건 자체가 아니라 수양의 과정이다.
 ⑤ ㉢은 각 관계의 직분과 차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다. 주희에게 분수는 현실의 차이가 그대로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였다.

7번

- ④ 나, 리이 적절하다.
 나. 하나의 보편적 도덕 원리가 전제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는 기를 통해 드러나며 사물의 기질과 관계의 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상이 놓인 형편이 다르면 서로 다른 규범이 하나의 이의 분열 없이 성립할 수 있다.
 리. 분수는 보편 원리가 개별 사물과 관계 속에서 달리 드러나는 양상을 뜻한다. 따라서 직분의 차이가 각자가 놓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바를 드러내는 경우, 이는 분수의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라. 이일분수의 논리는 하나의 이가 모든 사물에 내재하더라도 구체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마땅함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구체적 조건의 차이가 규범의 차이를 낳는 근거로 작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리. 주희에게 분수는 현실의 차이가 그대로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일정한 직분이 오래 유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

이 관계에 따른 마땅함이 현실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8번

⑤ <보기>에 따르면 정약용은 예악과 명교를 천지자연에 본래 갖추어진 질서가 인간 사회에 드러난 것으로 설명하는 견해를 비판한다. 그에게 제도는 성왕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며, 제도를 평가할 때에는 자연이나 도덕 원리의 발현 여부가 아니라 제작 목적과 실제 운용의 효과를 따져야 한다. 또한 제도가 오래 지속되었더라도 그 목적을 잃거나 폐단을 낳는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의 주회 역시 예가 관습화되어 그 근거인 이를 잃으면 더 이상 도덕 원리의 실현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점에서 주회와 정약용은 “근거를 잃은 형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판단의 근거는 다르다. 주회는 예가 도덕 원리인 이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정약용은 제도가 성왕의 제작 목적에 부합하는지, 실제 운용에서 효과를 내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정약용이 주회의 견해와 자신의 견해가 “근거를 같이한다”고 평가하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왕필은 현상계의 모든 사물과 제도가 무에 바탕을 두고 성립한다고 보았고, 명교가 자연에 연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제도의 근거를 자연의 이치에서 찾는 입장이다. 반면 <보기>의 정약용은 천지자연으로부터 인간 사회의 제도가 곧바로 도출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약용은 왕필의 견해를 제도의 후천적 제작성을 자연의 질서로 설명한 잘못된 견해라고 비판할 수 있다.

② 혜강은 명교를 인간 본성을 억압하는 허위적 가치로 보고, 인위적인 도덕 규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성정에 따를 것을 지향했다. 이는 명교의 인위성을 포착한 입장이다. 그러나 정약용은 제도를 성왕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며, 제작 목적과 운용 효과를 중시한다. 따라서 정약용은 혜강이 명교의 인위성은 포착했으나 제도의 통치상 기능을 간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광상은 군신과 부자의 위계를 타고난 분의 필연적 발현으로 보았고, 명교를 자연의 양상으로 긍정했다. 이는 사회적 위계와 제도를 자연적 본성의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제도를 성왕이 마련한 후천적 제작물로 보므로, 광상이 인위적 제도를 자연적 본성의 결과로 오인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④ 주회는 예와 제도를 외부에서 임의로 부과된 형식이나 단순한 관습으로 보지 않고, 이가 인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보았다. 즉 주회에게 예와 제도는 도덕 원리의 발현이다. 반면 정약용은 제도를 성왕의 제작물로 보므로, 정약용은 주회가 제도를 성왕의 제작물이 아니라 도덕 원리의 발현으로 보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9번

② ㉠의 ‘두고’는 “바탕을 두고”의 일부로, 어떤 것에 근거하거나 기반을 둔다는 뜻이다. ㉡의 “기존 이론에 뿌리를 두고” 역시 어떤 이론을 근거로 삼는다는 뜻이므로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깝다.

①의 ‘두고’는 판단의 무게를 어느 쪽에 둔다는 의미이다.

③의 ‘두고’는 어떤 것을 뒤로 미루거나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④의 ‘두고’는 물건을 어떤 장소에 놓아둔다는 의미이다.

⑤의 ‘두고’는 거리를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10번

④ 윗글은 전통적인 IS-LM 모형이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을 전제했다는 점과, 현대 경제에서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량 대신 단기 명목 이자율을 정책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러나 IS-MP 모형에서 중앙은행이 단기 명목 이자율 이외에 어떤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④는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다.

① 1분단에서 전통적인 IS-LM 모형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직접 조절한다고 전제했다고 하였으므로 답을 찾을 수 있다.

② 테일러 원리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질 이자율의 변동이 물가 상승 압력이나 경기 과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답을 찾을 수 있다.

③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면 같은 실제 인플레이션율에서도 실질 이자율은 이전보다 높게 설정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답을 찾을 수 있다.

⑤ 부정적 총공급 충격은 실제 인플레이션율 상승과 산출량 감소를 동시에 유발한다고 하였으므로 답을 찾을 수 있다.

11번

②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 때 명목 이자율도 같은 폭으로 인하된다면, 명목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차이인 실질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으므로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추론할 수 없다.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① 두 값이 모두 양의 값이면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과열이 있는 상태이다. 테일러 원리가 충족되면 명목 이자율 인상 폭이 실제 인플레이션율 상승 폭보다 커져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므로, 투자는 위축될 수 있다.

③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때 명목 이자율을 그 상승 폭보다 작은 폭으로 인상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방향, 같은 폭으로 움직인다는 가정 아래 실질 이자율은 하락한다.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가 늘 수 있다.

④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명목 이자율 인상은 실질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때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가 낮을수록 산출량 감소 폭은 작아진다.

⑤ 긍정적 총수요 충격은 실제 인플레이션율 상승과 산출량 증가를 동반한다. 중앙은행이 테일러 원리에 따라 대응하면 실질 이자율을 조정하여 총수요를 진정시키므로, 산출량은 충격 직후의 증가한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다.

12번

⑤ ㉠은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변동할 때 중앙은행이 기존의 대응 관계를 유지한 채 그 인플레이션율에 대응하는 실질 이자율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더 높은 실질 이자율이 선택된다. ㉡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같아도 이전보다 높은 실질 이자율이 선택된다. 따라서 ⑤가 적절하다.

① 물가 안정 목표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높은 실질 이자율이 선택되는 것은 ㉡에 해당한다.

② ㉠은 실제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에 따른 조합의 변화이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지 않아도 이전보다 높은 실질 이자율이 선택될 수 있는 것은 ㉡에 해당한다.

③ ㉡에서는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지 않아도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로 인해 이전보다 높은 실질 이자율이 선택될 수 있다.

④ ㉠은 같은 실제 인플레이션율에서 이전보다 높은 실질 이자율이 선택되는 경우가 아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변동함에 따라 선택되는 조합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13번

⑤ 이 문항은 <보기>의 수치를 지문의 세 가지 내용과 연결해야 한다. 첫째, 지문은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설명한다. 둘째, IS-MP 모형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방향, 같은 폭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한다. 셋째, 지문은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투자와 소비가 늘고 산출량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와 소비는 위축된다. 이를 바탕으로 올국의 실질 이자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충격 전 올국의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목표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2%이고, 명목 이자율은 5%이다. IS-MP 모형의 가정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로 볼 수 있으므로, 충격 전 실질 이자율은 5%-2%=3%이다.

충격 직후 올국의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6%로 상승하고, 정책 대응 전 명목 이자율은 5%로 유지된다.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폭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므로, 충격 직후 실질 이자율은 5%-6%=-1%이다.

정책 대응 후 올국의 명목 이자율은 7%이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표에서 6%로 주어져 있으므로, 정책 대응 후 실질 이자율은 7%-6%=1%이다.

따라서 올국의 정책 대응 후 실질 이자율 1%는 충격 직후의 -1%보다는 높지만, 충격 전의 3%보다는 낮다. 지문에 따르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와 소비가 늘고,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 그러므로 올국의 정책 대응은 충격 직후보다는 투자와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충격 전보다 투자와 소비를 더 강하게 위축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① 충격 전 두 나라의 명목 이자율은 5%,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2%이므로 실질 이자율은 3%이다. 충격 직후에는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6%로 상승하고, 명목 이자율은 여전히 5%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방향, 같은 폭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므로, 충격 직후 실질 이자율은 5%-6%=-1%가 된다.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으로 실질 이자율이 충격 전보다 낮아졌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정책 대응 후 갑국의 실질 이자율은 10%-6%=4%이고, 을국의 실질 이자율은 7%-6%=1%이다. 따라서 갑국의 실질 이

자율이 을국보다 높다. 지문에 따르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목 이자율이 아니라 실질 이자율이며,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와 소비가 줄어 총수요가 억제된다. 또한 <보기>에서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를 비롯한 다른 경제적 조건은 동일하다고 했으므로, 총수요 억제 정도는 실질 이자율이 더 높은 갑국에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③ 갑국은 명목 이자율을 10%로 올렸고, 을국은 7%로 올렸다. 두 나라의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6%이므로 갑국의 실질 이자율은 4%, 을국의 실질 이자율은 1%이다. 을국은 갑국보다 실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를 덜 위축시킨다. 따라서 산출량 방어에는 을국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문은 부정적 총공급 충격에서 산출량 방어를 위해 명목 이자율 인상을 제한하면 총수요 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을국의 대응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는 갑국보다 불리하다.

④ 충격 직후 두 나라의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6%이고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2%이므로,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4%p 초과한다. 지문에 따르면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초과하는 정도는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 목표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이며, 이 값이 양수이면 물가 상승 압력이 목표보다 큰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이는 금리 인상 요인이다. 반면 충격 직후 실제 산출량은 97이고 잠재 산출량은 100이므로, 실제 산출량-잠재 산출량은 -3이다. 이는 실제 생산이 잠재 생산 능력보다 낮은 상태이므로, 산출량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4번

② 샤딩 기술은 네트워크의 노드와 데이터를 여러 개의 작은 그룹인 샤드로 나누어 각 샤드가 자신에게 할당된 거래만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샤딩 네트워크의 전체 거래 처리량은 각 샤드가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을 모두 더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노드와 데이터를 여러 개의 작은 그룹으로 나누는 기술에서 총 노드 수가 증가하면 확장성이 높아질 수 있다.

①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노드가 동일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발생한 모든 거래를 검증한다고 하였다. 거래 검증을 나누어 수행한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샤드가 많아질수록 임의의 두 사용자가 같은 샤드에 속할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교차 샤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진다.

④ 같은 샤드에 속한 두 사용자 간 거래는 단일 샤드 거래이므로 하나의 샤드 안에서 상태 갱신이 확정된다. 서로 다른 샤드의 상태 갱신을 조율해야 하는 것은 교차 샤드 거래이다.

⑤ 2단계 승인 메커니즘은 교차 샤드 거래에서 원자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샤드 내 합의의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없다.

15번

③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샤드 수를 늘리면, 전체 노드 수가 일정할 때 각 샤드에 배정되는 노드 수는 줄어든다. 노드가 무작위로 배정되는 경우 샤드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각 샤드의 노드 구성이 전체 네트워크의 노드 구성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특정 샤드에서 악의적 노드의 비율이 합의 장악 기준치를 넘을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① 샤드별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합의 장악 기준치가 낮아진다고 볼 수 없다.

② 교차 샤드 거래가 늘더라도 샤드 내 합의가 생략된다고 한 내용은 없다.

④ 전체 노드 수가 일정하다고 전제되어 있으므로 전체 노드 수가 줄어든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지문은 노드가 무작위로 배정되는 경우 샤드별 노드 구성의 편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할 뿐, 악의적 노드가 무작위 배정을 조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16번

② 이 문항은 2단계 승인 메커니즘에서 “수신 계좌의 잠금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해제되는지”를 정확히 추적해야 한다. 지문에 따르면 수신자 샤드는 수신 계좌가 유효하면 그 계좌를 잠근 뒤 검증 성공 영수증을 송신자 샤드로 보낸다. 또한 수신 계좌의 잠금은 송신자 샤드의 승인 또는 중단 메시지가 도달할 때까지 유지된다. 잠금이 유지되는 동안 해당 계좌를 수신 계좌로 삼는 다른 교차 샤드 거래의 유효성 검증 요청과 갱신은 처리되지 않는다.

<보기>에서 ㉠은 10:00:00에 시작되었고, Y는 10:00:20에 수신 계좌 p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검증 성공 영수증을 X로 보낸다. 이때 Y의 p는 잠긴다. 그런데 X가 검증 성공 영수증을 기다리는 정해진 시간은 거래 시작 시각부터 5분이므로, X는 10:05:00까지 검증 성공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0:05:00에 X의 검증 성공 영수증 수신 기록은 없다. 따라서

X는 정해진 시간 안에 검증 성공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송신자의 잔고를 차감하지 않고 잠금만 해제하는 톨백을 수행한 뒤 중단 메시지를 보낸다.

문제는 이 중단 메시지가 Y에 도달하는 시작이다. <보기>에 따르면 X의 중단 메시지는 10:06:20에 Y에 도달한다. 따라서 10:05:30에 Z가 보낸 p에 대한 유효성 검증 요청이 Y에 도달했을 때, p는 아직 ㉔로 인해 잠겨 있는 상태이다. 지문은 잠금이 유지되는 동안 해당 계좌를 수신 계좌로 삼는 다른 교차 사드 거래의 유효성 검증 요청과 갱신은 처리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10:05:30에 Y가 Z에게 ㉑의 검증 성공 영수증을 보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① ㉔에서 X는 10:05:00까지 검증 성공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 지문에 따르면 정해진 시간 안에 검증 실패 영수증을 수신하거나 어떠한 영수증도 수신하지 못하면, 송신자 샤드는 송신자의 잔고를 차감하지 않고 잠금만 해제하는 톨백을 수행한다. 따라서 10:05:00이 지나면 X는 송신자의 잔고를 차감하지 않은 채 잠금을 해제한다고 볼 수 있다.

③ ㉔에서 검증 성공 영수증은 10:06:00에 X에 도달한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은 거래 시작 시각인 10:00:00부터 5분이므로, 10:05:00까지이다. 지문은 정해진 시간 안에 영수증을 수신하지 못해 톨백을 수행한 뒤 이후 도달한 영수증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X는 10:06:00에 도달한 검증 성공 영수증을 근거로 승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④ Y는 10:00:20에 p를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p를 잠근다. 이 잠금은 송신자 샤드의 승인 또는 중단 메시지가 도달할 때까지 유지된다. X의 중단 메시지는 10:06:20에야 Y에 도달하므로, 10:06:00에 검증 성공 영수증이 X에 도달한 시점에도 Y의 p 잠금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⑤ X는 정해진 시간 안에 검증 성공 영수증을 받지 못했으므로 중단 메시지를 보낸다. 지문에 따르면 중단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 샤드는 수신 계좌가 잠겨 있었다면 잔고 증가 없이 그 잠금을 해제한다. 따라서 X의 중단 메시지가 10:06:20에 Y에 도달하면, Y는 수신자 잔고 증가 없이 p의 잠금을 해제한다.

17번

④ ㉑ ‘확정되지만’은 상태 갱신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거나 반영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판정되지만’으로 바꾸면, 어떤 대상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결과를 판단한다는 의미가 강해져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④가 적절하지 않다.

① ㉑ ‘보유하고’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지니고’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㉑ ‘할당된’은 일정한 몫이나 대상을 맡겨 받은 의미이므로 ‘배정된’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㉑ ‘변조될’은 데이터가 임의로 바뀌거나 조작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조작될’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㉑ ‘수행한’은 어떤 절차나 작업을 실행했다는 의미이므로 ‘실행한’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8번

① 윗글은 청허선사가 전란으로 무너진 강도에서 비몽사몽간에 기이한 장면을 엿보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청허선사가 숨어서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 부녀자들이 차례로 자신의 사연을 말하고, 이를 통해 전란의 참상과 원통함이 드러난다. 따라서 한 인물이 기이한 장면을 엿보는 과정을 따라 다른 인물들의 사연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전란 이후 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전란의 참상과 원혼들의 원한이 부각된다.

③ 여러 인물의 발화가 제시되지만, 인물들 간의 상호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인물은 자신의 사연을 차례로 토로한다.

④ 현실과 꿈의 경계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경계를 반복적으로 넘나들며 한 인물의 혼란이 해소되는 과정이 제시되지는 않는다.

⑤ 비현실적 존재들의 외양은 회화적으로 묘사된 것이 아니라, 전란으로 인한 참혹한 죽음을 드러내기 위해 끔찍하고 비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19번

⑤ ‘숲속’은 청허선사가 원혼들에게 들길까 두려워 몸을 숨기는 공간이다. 선사는 원혼들의 사연을 헤아리기 위해 물러선 것이 아니라, 혹시나 그들이 자신을 알아차릴까 두려워 숲속에 숨어 있다. 따라서 ‘숲속’을 선사가 원혼들의 사연을 헤아리려 물러선 공간이라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강도’는 전란으로 무너지고 백성들이 참혹하게 죽은 공간이며, 원혼들의 사연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② ‘연미정 기슭’은 청허선사가 죽은 부녀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사연을 듣게 되는 공간이다.

③ ‘성문’은 싸워 보지도 않고 성문을 열어 구차한 죽음을 면한 남편의 행적과 관련된다.

④ ‘지옥’과 ‘극락세계’는 인물들의 죽음이 사후에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 주는 공간이다.

20번

⑤ ㉑의 기생은 부녀자들의 정절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를 ‘충신절사의 행위’로 평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생은 국치가 임박했음에도 충신절사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부녀자들의 정절만이 늠름했다고 말한다. 즉 부녀자들의 정절을 충신절사의 행위로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충신절사의 부재와 부녀자들의 정절을 대비하고 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① ㉑의 여자는 강도 수비 실책의 책임을 낭군과 자식에게 돌린다. 특히 태보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증책을 자식에게 맡겼고, 그 자식이 향락에 빠져 대사를 그르쳤다고 말하므로 적절하다.

② ㉑의 부인은 남편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책임을 진 다른 위치자들이 처벌을 피한 사실을 들어 원통함을 드러낸다.

③ ㉑의 부인은 자식의 강권에 못 이겨 죽었고, 억지 정절로 정문이 세워졌다고 말한다. 이는 자신의 죽음이 자의적 순절이 아니었음을 드러낸다.

④ ㉑의 인물은 국운을 입고도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두려워하여 적의 종이 된 자들을 비판한다. 이는 절의의 관점에서 구차한 생존을 비판한 것이다.

21번

⑤ <보기>는 『강도몽유록』이 전란으로 희생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배층의 무능과 책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여성의 죽음에 대한 사후 평가가 남성 가부장의 정치적 행보와 연결되어 제시된다고 설명한다. 윗글에서 염라대왕은 한 부인의 죽음을 평가하며, 그 아버가 갑자년의 변고에는 원혼들의 목을 벨 것을 주장하고, 정묘년의 난리에는 화의를 배척하여 대의명분을 세웠다고 말한다. 이는 아버의 정치적 행보를 긍정하는 맥락이다. 따라서 아버의 척화 명분을 본받았다는 평가가 그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기능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㉑의 여자는 낭군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자식에게 증책을 맡겼고 자식이 향락에 빠져 대사를 그르쳤다고 말한다. 이는 지배층의 책임 비판이 가문 내부의 책임 관계와 얽혀 있음을 보여 준다.

② ㉑의 부인은 남편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책임을 지고도 처벌을 피한 이민구와 김자점을 거론한다. 이는 지배층의 무능 비판이 자기 가문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발화와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③ ㉑의 부인은 자식의 강권으로 죽었음에도 억지 정절이 만들어지고 정문이 세워졌다고 탄식한다. 이는 정절의 가치가 여성의 희생을 명예화하는 당대 이념으로 작동했음을 보여 준다.

④ ㉑의 인물은 국운을 입고도 구차하게 살아남은 자들을 비판하며, 비명에 죽은 자신의 처지와 대비한다. 이는 충절과 정절의 가치에 기대어 지배층의 무능을 비판하는 발화로 볼 수 있다.

22번

③ (가)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안 바꾸어버렸다”라는 좌절의 인식에서 출발하지만, 이후 “실망의 가벼움”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고, 마지막에는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라고 말한다. 실패와 상실을 거쳐 새로운 내면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인식의 전환이 드러난다.

(나)는 사라짐을 단순한 소멸로만 보지 않고,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 둥근 여백”, “여백이란 탄생”이라고 인식한다. 부재와 존재, 사라짐과 탄생의 대립적 의미가 전환된다.

(다)는 사람들이 꺼리는 ‘기’의 처지를, 자용이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지조를 지키는 태도와 연결하여 긍정한다. 따라서 세 작품 모두 대립적 의미의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이나 처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① 특정 구절의 반복이 나타나기는 하나, 대상과의 거리감이 점차 해소되는 과정을 공통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② 감각적 이미지가 병렬되어 정적인 공간 분위기가 부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나더라도, 부재한 대상에 대한 원망을 직접 표출하는 것이 세 작품의 공통점은 아니다.

⑤ 과거와 현재의 장면을 교차하여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23번

② ㉑ ‘방’은 화자가 과거의 혁명적 열망과 노래, 낙서를 남겨 두고 떠난 공간이다. 화자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안 바꾸어버렸다”라고 말하며, 그 방에 “모든 노래”를 남겨고 왔다고 한다. 따라서 ㉑는 혁명의 열망이 남겨진 상실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⑥ ‘여백’은 어머니의 부재와 연결되지만, 단순한 빈자리로만 제시되지 않는다. 시에서는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 “여백이란 탄생”이라고 하여, 사라짐 뒤에 새롭게 떠오르는 존재의 의미를 드러낸다. 따라서 ⑥는 사라짐 뒤에 존재가 새롭게 떠오르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① ⑥는 대상의 부재가 남긴 쓸쓸함을 지워내는 공간이 아니다. 여백은 쓸쓸함이면서 동시에 탄생으로 인식된다.

③ ㉑는 실패한 의지를 다시 회복해야 할 공간이기보다, 실패한 열망이 남겨진 공간이다. ⑥ 역시 부재를 단순히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④ ⑥는 사라진 대상을 대신 채워 주는 위안의 공간이기보다, 사라짐 뒤에 남는 여백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공간이다.

⑤ ㉑가 상실을 통해 내면의 충만에 이르는 계기와 관련되기는 하지만, ⑥를 세속의 소리를 끊어내어 고요만을 보존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4번

① ㉑의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과거의 방 벽에 남아 있던 말이다. 그러나 화자는 그 말을 “헛소리처럼”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 방에 모든 노래를 남겨고 왔다고 한다. 또한 뒤에서는 그 노래도 그전의 노래도 다 잊어버렸다고 말한다. 따라서 ㉑이 과거의 실천 의지가 현재의 삶을 계속 이끌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㉑은 “달콤한 의지의 잔재”와 “쓰디쓴 담뱃진 냄새”를 대비하여, 좌절 이후 의지의 흔적 대신 쓸쓸한 감각이 되살아나는 양상을 드러낸다.

③ ㉑은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 뒤에서 바람이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사라지는 장면이다. 이는 사라짐이 또 다른 여백을 낳으며 이어지는 양상을 드러낸다.

④ ㉑은 화자가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 제시된다. 이는 화자의 마음의 잠초가 다스려진 뒤라는 조건을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⑤ ㉑에서 질문자는 자용에게 왜 ‘기’의 처지에 염증을 내고 청산하려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는 질문자가 자용의 처지를 벗어 나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25번

④ 〈보기〉는 시의 시간적 계기를 과거의 경험, 현재의 인식, 미래에 대한 진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인식 조건으로 제시되고, 현재의 인식은 과거 경험을 수용하거나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미래에 대한 진술은 현재의 인식이 향하는 방향을 드러낸다.

(나)의 “서울에서 물혀 온 온갖 잔소리들”은 화자가 도시적 삶에서 물혀 온 세속적 소음이나 번뇌에 가깝다. 이것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 들 가운데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라고 한 것은, 잔소리들이 시냇물의 흐름을 따라 사라져 가는 과정을 드러낸다. 특히 “흘러흘러”와 연결 어미 “-고”는 사라짐이 완료된 뒤의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현재의 시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의 이미지를 만든다. 따라서 이를 “이전 삶의 흔적이 사라진 뒤의 상태”를 인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나는 그 노래도 그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과거의 노래와 현재의 화자가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과거와 관련된 것들을 현재의 화자가 이미 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② (가)의 화자는 “녹슬은 팬과 뼈와 광기”에 이어 “실망의 가벼움”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는다고 말한다. 이는 과거의 좌절이나 실망을 현재의 자기 인식 속에서 수용하고 재해석하는 모습이다.

③ (나)는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와 “신산 뒤”의 여백을 떠올린 뒤, 석양 무렵 등산에 올라 그 여백 아래 앉아 있는 현재의 시적 상황을 제시한다. 따라서 부재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시적 상황을 여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은 미래의 자기 부재를 상상하는 표현이다. 화자는 그때 “네 사림에 걸린 노을”이나 “네 발 아래로 쟁쟁게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자 한다. 이는 현재의 화자가 미래의 자신을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상상하는 모습이다.

26번

⑤ 〈보기〉에 따르면 (다)는 자용의 거처에 붙인 이름을 풀이하며, 통념상 꺼려지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살피고, 자용이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평가하는 글이다. 장주의 말에서 “기인”은 세속과는 맞지 않지만 하늘과는 화합하는 사람이다. 글쓴이는 세속과 맞지 않아도 하늘과 화합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장주의 말을 인용한 것은 세속과 맞지 않음과 하늘과의 화합이라는 두 조건이 균형을 이룰 때 ‘기’의 처지가 긍정될 수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속과 맞지 않더라도 하늘과 화합한다면 그 처지가 긍정될 수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① 글쓴이는 음양의 수에서 ‘기’와 ‘우’를 끌어와, 기는 흙이고 우는 겉이라는 식으로 각각의 속성을 풀이한다. 이는 ‘기암’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사물의 이치 속에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② 사람들은 이익을 좋아하고 의리를 지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우’를 선호하고 ‘기’를 꺼린다고 하였다. 이는 자용이 받아들인 ‘기’라는 이름이 세속의 일반적 선호와 어긋나는 것임을 보여 준다.

③ 자용은 자신이 ‘기’의 처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취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이름을 통해 실상을 감추기보다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④ 글쓴이는 자용이 곤궁한 처지에서도 신조를 바꾸지 않고 지조를 굳게 지킨다고 평가한다. 이는 ‘기암’이라는 명호의 의미와 자용의 태도를 연결한 것이다.

27번

⑤ ‘나’는 언문 잡지에서 아버씨의 이름과 “경제”, “사회”라는 일부 표현을 발견한 뒤,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경제와 사회주의의 관계에 관한 글일 것이라고 짐작한다. 이후 아버씨에게 “경제를 하란 뜻이오? 사회주의를 하란 뜻이오?”라고 묻고, 아버씨가 자신의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자 오히려 그 반응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여 아버씨를 몰아세운다. 마지막에는 아버씨가 “네 말이 옳아!”라고 한 것을 자신의 승리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인물이 글의 일부 표현만으로 내용을 짐작하고, 상대의 반응을 자신의 짐작이 맞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① ‘나’는 두 잡지를 대비하며 낯선 글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조선 잡지를 열등한 것으로 단정한다.

② ‘나’는 아버씨의 설명을 듣고 처음의 추측을 거두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오해를 계속 밀어붙인다.

③ 용어의 뜻을 둘러싼 문답이 나타나지만, ‘나’의 오해가 해소되거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는 않는다.

④ 아버씨의 웃음과 동의 표현을 계기로 ‘나’가 아버씨의 학문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버씨를 이겼다고 받아들인다.

28번

① 언문 잡지는 처음에는 ‘나’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상이다. ‘나’는 조선 사람들이 잡지를 반반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말하며 언문 잡지를 깎아내린다. 그러나 그 잡지 안에서 아버씨의 이름을 발견하면서 장면의 초점은 잡지 일반에 대한 평가에서 아버씨의 글로 옮겨 간다. 따라서 언문 잡지는 처음에는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지만, 그 안에서 상대의 이름이 발견되며 장면의 초점이 상대의 글로 이동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② 아주머니의 부재는 장면의 배경일 뿐, 언문 잡지가 장면의 초점을 그 상황에 머물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나’는 일본 잡지와 언문 잡지를 대비하지만, 그 대비가 아버씨의 글을 대하는 기준을 바꾸지는 않는다. ‘나’는 계속 자기 기준으로 글을 판단한다.

④ ‘나’는 아버씨의 글을 읽어 보려 하지만, 읽어 먹을 재주가 없다고 하며 관심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다.

⑤ 언문 잡지는 아버씨가 머리맡에 쌓아 둔 대상이지만, 아버씨가 자신의 견해를 먼저 내세우는 상황을 마련하지는 않는다.

29번

⑤ [B]에서 아버씨는 “경제한다”는 일상적 의미와 “경제학”, “경제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하며, ‘나’의 오해를 바로잡으려 한다. 그러나 [C]에서 ‘나’는 이 구별을 바탕으로 아버씨의 설명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못하는 경제학 공부를 오 년이나 했다”며 아버씨의 배움 자체를 문제 삼는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나’는 아버씨의 글 제목에 보인 “경제”와 “사회”라는 말을 나란히 놓고, 그 글이 경제를 하라는 뜻인지 사회주의를 하라는 뜻인지 묻는다. 이는 상대의 글을 어느 한쪽을 권하는 글로 좁혀 묻는 것이다.

② [B]에서 ‘나’는 “경제란 건 돈 많이 벌어서 애겨 쓰구 나머지 모아두는 것”이라는 익숙한 쓰임에 기대어 말의 뜻을 한정한다. 아버씨는 경제학이나 경제적이라는 말은 그것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③ [C]에서 ‘나’는 아버씨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설명을 “경제 못하는 경제학 공부”라는 식으로 바꾸어 아버씨를 공격한다.

④ [A]와 [B]에서 ‘나’는 상대의 글과 말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이해하고, [C]에서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아버씨를 몰아세운다.

30번

⑤ 〈보기〉에 따르면 「치숙」은 ‘나’에게 초점화된 서술을 통해 ‘나’가 아버씨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그 말 속에 드러난 ‘나’ 자신의 무지와 식민지적 가치관을 비판하게 한다. 또한 아버씨의 말과 태도는 지식인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현실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 한계가 ‘나’가 제대로 인식한 내용이기보다, 독자가 ‘나’의 편향된 서술을 따라가며 파악하게 되는 작품의 의미라는 점이다.

㉞에서 ‘나’는 아버씨가 대학교를 다니고 많은 지식을 지녔더라도 자신의 말에 꼼짝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상대의 학식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결국 자기 기준에 따라 아버씨를 낮추어 보는 태도이다. 그러나 ‘나’가 아버씨의 지식인적 면모가 현실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는 아버씨의 지식이나 시대적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속적 기준에서 아버씨를 무능하다고 여길 뿐이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① ㉟에서 ‘나’는 자신이 언문을 읽기 어려운 일을 “우리 같은 놈”의 어려움으로 일반화한다. 이는 조선 잡지에 대한 불만을 그럴 듯하게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의미 이해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② ㊱에서 ‘나’는 한문 글자마다 가나가 달려 있어 술술 읽히는 일본 잡지를 우월하게 여긴다. 이는 자신에게 익숙한 읽기 편의를 기준으로 대상을 평가하는 태도이며, 일본 잡지를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식민지적 가치관을 드러낸다.

③ ㊲에서 ‘나’는 아버씨가 대학교에서 경제를 배웠고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돈벌이에 실패한 삶과 연결한다. 이는 아버씨를 개인적 무능의 차원에서 낮추어 보는 태도이다.

④ ㊳에서 ‘나’는 아버씨가 즉각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가 말을 너무 까다롭게 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는 상대의 반응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관화하는 태도이다.

31번

③ (나)는 “나무도 바위도 돌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긴 가토리”와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실은 배에서 노도 잃고 닻도 잃고 줄도 끊어진 도사공”을 잇달아 제시한다. 두 대상은 모두 의지할 곳 없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대상을 나열한 뒤, “어제 임 여원 내 안이야 어디다가 가을하리오”라고 하여 화자 자신의 처지를 부각한다. 따라서 유사한 처지를 지닌 대상을 잇달아 제시하여 화자가 겪는 상황을 점층적으로 부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① (가)에는 이동 경로가 제시되지만, 이를 통해 공간의 안정감을 부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화자는 유배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처지를 탄식한다.

② (가)는 비유적 소재를 활용하지만, 화자의 처지가 바뀌어 가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충정과 억울한 처지를 드러낸다.

④ (나)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화자의 위태로운 처지를 환기하는 대상들을 나열한다.

⑤ (다)의 고봉 장성령은 바람과 구름, 매들도 쉬어 넘는 험한 공간이다. 편안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공간이 아니다.

32번

④ ㉞에서 화자는 자신의 우직함과 미친 듯 망령된 짐을 자신의 허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어서 “근본을 생각하니 임 위한 정성”이라고 하여, 그 허물이 결국 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따라서 ㉞은 자신이 겪은 잘못을 타고난 성정에서 비롯된 일로 체념하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면서도 그 근본이 임을 향한 정성에 있음을 호소하는 표현이다.

① ㉟은 화자에게 덧씌워진 평가이다. 화자는 참언이 망극하다고 말하므로, 자신의 처지가 남의 말로 인해 그릇되게 받아들여졌다고 인식한다.

② ㊱의 뜬구름은 해를 가려 서울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연물이다. 이는 떠나는 길에서도 임이 있는 서울을 향한 시선이 가로막히는 상황을 드러낸다.

③ ㊲은 입금이 하사한 책을 햇볕과 바람에 말려 보존하는 행위이다. 화자는 자신이 떠난 뒤 책이 좀벌레에게 먹힐 것을 염려하므로, 임에게 받은 물건조차 방치될 수 있다는 걱정을 드러낸다.

⑤ ㊳의 가을 부채는 쓰임을 잃은 물건으로, 임의 사랑을 잃은 화자의 처지를 환기한다. 동시에 어느 날 다시 쓰일 수 있을지 묻는 표현을 통해 다시 임의 부름을 받게 될 날에 대한 기대와도 연결된다.

33번

① ㉠ ‘가토리’는 나무도 바위도 돌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대상이다. 숨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에서 위협을 받는 존재로 제시된다. ⑥ ‘고봉 장성령’은 바람도 쉬어 넘고, 구름도 쉬어 넘고, 산진이·수진이·해동청·보라매도 쉬어 넘는 높은 고개이다. 따라서 ㉠는 다른 대상에게 쫓기는 대상이고, ⑥는 여러 존재들이 쉬어 넘는 공간이라는 설명이 적절하다.

② ㉡는 외부의 위협을 피해서 숨어든 대상이 아니라, 숨을 곳 없는 산에서 쫓기는 대상이다. ⑥는 화자가 이미 지나온 공간이 아니라, 임이 왔다면 쉬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말하는 공간이다.

③ ㉢는 화자의 처지와 비슷한 대상이지만, ⑥는 화자의 머무름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 아니다.

④ ㉣는 바다가 아니라 산에서 위태로워진 대상이다. ⑥는 임의 부재를 확인하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임이 왔다면 화자가 넘어가고자 하는 공간이다.

⑤ ㉤와 ㉥가 모두 화자가 도달하려는 대상은 아니다. ㉠는 화자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이고, ⑥는 넘어가야 할 공간이다.

34번

⑤ 〈보기〉는 고전시가에서 구체적 사물, 공간, 행위의 형상이 화자의 처지나 정서를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고 설명한다. (다)에서 화자는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여러 매들도 쉬어 넘는 “고봉 장성령”을 반복적으로 말한다. 이는 그 고개가 얼마나 험한 공간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그 너머에 임이 왔다고 하면 자신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말한다. 따라서 바람, 구름, 여러 매의 행위는 화자가 그대로 따라가려는 행위가 아니라, 화자의 태도와 대비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대상들의 구체적 행위에 따라 임에게 이르려는 태도를 부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화자가 “한수”를 지나고 “노령에 올라” 북쪽을 돌아보는 것은 유배 길의 이동 상황과 임이 있는 서울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이는 특정한 장소와 이동 상황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환기하는 것이다.

② (가)에서 화자가 “반계”의 “초가집”과 “임금께서 하사하신 천 권 책”을 떠올리는 것은 자신이 떠난 뒤 돌보지 못하게 된 대상들에 대한 염려를 구체화한다.

③ (가)의 “가을 부채”, “백두음”, “장문부”는 모두 임의 사랑을 잃은 처지와 관련되는 비유적 소재나 고사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임파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한다.

④ (나)에서 “나무도 바위도 돌도 없는 산”의 “가토리”와 “수적 만난 도사공”을 이어 제시하는 것은, 화자의 위태롭고 의지할 곳 없는 처지를 다른 대상들의 처지와 관련지어 드러내는 것이다.

화법과 작문

35번

① 발표자는 도입부에서 “혹시 배가 아플 때 스스로 자연물을 먹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야생동물이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나요?”라고 질문한 뒤, 청중의 대답을 듣고 “처음 듣는 분들이 많네요.”라고 반응한다. 이는 질문을 통해 청중이 발표 화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말하기 방식이다. 따라서 ①이 가장 적절하다.

② 발표자는 칠판지, 마코 앵무새, 숲붉은개미의 사례를 제시하지만, 각 사례의 한계를 비교하여 발표의 쟁점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③ 발표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발표자는 “동물의 자가 치료 현상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말하지만, 발표의 세부 목차를 미리 나누어 제시하지는 않는다.

⑤ 발표자는 동물들이 자연 속 물질을 활용해 건강을 지킨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마무리할 뿐, 청중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지는 않는다.

36번

① 자료 ㉠은 칠판지가 먹는 아스필리아 잎을 확대한 사진으로 제시된다. 발표자는 이를 통해 잎 표면에 미세하고 뾰뾰한 털들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칠판지가 이 잎을 씹지 않고 삼키면 잎 표면의 털들이 기생충을 얹어매어 함께 배출시킨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료 ㉠ 자체가 잎이 장으로 내려가 기생충을 얹어매어 배출시키는 “소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다.

② 발표자는 자료 ㉡을 제시하며 “잎 표면에 미세하고 뾰뾰한 털들이 보이시죠?”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은 잎 표면의 구조를 확인하게 하는 데 활용되었다.

③ 자료 ㉢은 마코가 진흙을 먹는 모습과 소화관 내 결합 모식도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발표자는 이를 통해 점토 광물과 독성 물질이 결합하여 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는 원리를 설명한다.

④ 자료 ㉣은 송진 단독일 때보다 개미산과 송진이 섞였을 때 곰팡이 억제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그래프로 활용된다.

⑤ 발표자는 개미산이 송진과 섞이면 송진 속 항균 물질이 더 잘 녹아 나와 항균 작용이 증폭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은 자연에서 구한 송진과 개미가 분비한 개미산의 결합이 항균 작용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활용되었다.

37번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다룬 마코 앵무새의 진흙 섭취에 대해, 자신이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미네랄 보충 목적”이라는 발표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 내용도 함께 다루었으면 섭취 목적을 더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발표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의 보완 필요성을 인식한 반응이다. 따라서 ①이 가장 적절하다.

② 학생 2는 개미산이 송진의 작용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를 생태 동아리 발표 자료에 추가하려 한다. 발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학생 3은 칠판지 사례를 자신의 강아지 경험과 연결하여 비슷한 원리인지 찾아보려 한다. 이는 발표 사례를 자기 경험에 적용하여 추가 탐구를 계획하는 것이지, 정보의 효용성을 판단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학생 2는 발표 내용을 이용하여 추가 발표 자료에 사례를 넣으려 하지만, 학생 1은 추가 발표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 설명의 보완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⑤ 학생 2는 발표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고 발표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학생 3도 발표의 설명을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추가 탐구를 하려 한다.

38번

⑤ (가)에서 전문가는 청소년들이 느슨한 연대 방식의 모임을 선호하는 이유와 장점을 설명하면서도, 단기적인 만남에 그칠 경우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이나 갈등 조율을 통한 사회성 발달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한계를 함께 제시한다. (나)에서도 학생들은 단기 프로젝트형 동아리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기존 자율동아리의 장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지도교사 배정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한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현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① (가)는 전문가가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지만,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가)는 현상의 원인을 합의된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지 않는다.

③ (나)에서는 의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가)와 대비되는 가장 핵심적인 양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도 진행자의 질문을 통해 논의가 전개된다.

④ (나)에서 학생들이 각자 수집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며 목표를 수정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39번

③ ㉢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우려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뒤, 기존의 1년 단위 연간 동아리 제도는 기본으로 유지하고, 1개월에서 3개월가량 짧게 활동하는 단기 프로젝트형 동아리를 보완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한다. 이는 기존 제도의 운영 목적을 수정하는 방안이 아니라, 기존 제도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학생 2는 지난달 학생회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장기 활동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율동아리 가입을 망설인 학생들이 많았음을 제시하고, 단기 프로젝트형 동아리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② ㉡에서 학생 3은 단기 프로젝트형 동아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자율동아리의 장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④ ㉣에서 학생 2는 지도교사 섭외와 배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학생회 산하 동아리 운영 위원회가 활동 계획서를 사전 심사하는 보완책을 제시한다.

⑤ ㉤에서 학생 1은 단기 활동이 일회성 경험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성찰 일지 제출이나 결과물 공유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한다. 이는 단기 활동의 한계를 예상하고 활동 이후의 절차를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다.

40번

③ (가)의 전문가는 느슨한 연대 방식의 장점과 함께, 단기적인 만남에 그치면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이나 갈등 조율을 통한 사회성 발달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나)에서 학생 3은 이 한계에 주목하여, 단기 동아리만 시행하면 기존 자율동아리의 장점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학생 1은 기존의 1년 단위 연간 동아리 제도는 기본으로 유지하되, 단기 프로젝트형 동아리를 보완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한다. 이 내용은 (다)에서 “기존의 연간 동아리 제도를 유지하면서, 1개월에서 3개월가량 짧게 활동하는 ‘단기 프로젝트형 동아리’ 제도를 신설” 하자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③이 가장 적절하다.

① (다)는 기존 연간 동아리의 활동 기간 자체를 조정하자고 하지 않는다. 기존 연간 동아리 제도는 유지하고, 별도의 단기 프로젝트형 동아리를 신설하자고 한다.

② 학생 2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구체화하는 근거로 반영되었다. 느슨한 연대 방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배경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다.

④ 지도교사 배정 문제를 보완하려는 학생 2의 제안은 (다)에서 동아리 운영 위원회가 활동 계획서를 사전 심사하여 선생님들의 관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단기 활동이 피상적 경험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리의 보완책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다.

⑤ 단기 활동의 피상성을 우려한 데 대한 보완책은 성찰 일지 제출이나 결과물 공유이다. 활동 기간을 학사 일정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와는 관련이 다르다.

41번

④ (다)는 건의문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안한다. 그러나 반대 입장의 주장을 직접 인용한 뒤, 그 한계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제언의 타당성을 강화하고 있지는 않다. “단기 활동이 자칫 피상적인 경험으로 끝날 수 있고 지도교사 배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지만, 이는 반대 입장의 발언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① (다)는 최근 사회적으로 개인의 취향과 자율성을 중시하며 느슨한 연대 방식의 단기 모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회적 흐름을 언급하며 건의의 배경을 제시한다.

② 학생회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학생의 65%가 장기 활동에 대한 부담으로 동아리 가입을 주저했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구체화한다.

③ 단기 활동의 피상성, 지도교사 배정의 어려움이라는 예상 문제점을 제시한 뒤, 성찰 일지 제출, 결과물 공유, 동아리 운영 위원회의 사전 심사 등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의 긍정적 평가를 활용하여, 유연한 모임 방식이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키고 경험의 폭을 넓히는 데 긍정적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42번

② 수정 전에는 학생회 산하 동아리 운영 위원회가 직접 활동 계획서를 사전 심사한다고 되어 있어, 학생회가 심사를 전적으로 맡는 것처럼 보인다. 수정 후에는 학생회가 1차로 활동 계획서를 사전 심사하되, 지도교사가 최종 승인과 자문을 맡는다고 고쳐졌다. 이는 학생회의 자치적 역할은 유지하되, 교육적 책임이 필요한 부분에서 교사의 역할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교장 선생님의 피드백은 “학생회가 모든 심사를 맡는 것은 교육적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교사의 역할을 함께 제시해 달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① 수정 후에도 심사 기준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

③ 결과를 관리 절차는 이미 앞에서 성찰 일지 제출이나 결과물 공유로 제안되어 있으며, 수정된 부분은 활동 계획서 심사와 승인 주체에 관한 것이다.

④ 수정 후에는 학생회의 역할이 완전히 축소되어 교사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학생회가 1차 심사를 맡고 교사가 최종 승인과 자문을 맡도록 역할을 나눈 것이다.

⑤ 수정 내용은 개설 가능한 활동 주제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43번

③ 초고 3문단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긍정적 효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수확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농민이 전기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농가 소득 측면의 효과이고, 패널이 그늘막 역할을 하여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작물 보호와 수확량 안정 측면의 효과이다. 그러나 초고에서 농작업 효율성이 영농형 태양광의 긍정적 효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4문단에서 기동 구조물 때문에 대형 농기계를 원활하게 조작하기 힘들어져 농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로 제시된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다.

① 초고 1문단은 대규모 발전 부지 확보 과정에서 우량 농경지가 훼손되거나 용도가 변경되는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② 초고 2문단은 식물의 광포화점 원리를 바탕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④ 초고 4문단은 초기 구조물 설치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기동 구조물로 인한 농작업상 어려움을 영농형 태양광의 과제로 제시한다.

⑤ 초고는 환경 보호와 농업 환경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할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소개하고, 그 보급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를 함께 분석한다.

44번

② 학생이 떠올린 생각에 따르면, 글을 마무리할 때에는 4문단에서 언급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과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4문단의 한계점은 초기 구조물 설치 비용 부담과, 기동 구조물 때문에 대형 농기계를 원활히 조작하기 어려워 농작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②는 구조물이 농기계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를 개선하고자 하여 기술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초기 설치비 부담을 줄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여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마지막에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영농형 태양광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자고 하여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 따라서 ②가 가장 적절하다.

① 패널 배열 조정은 기술적 개선 방향이지만, 생산 전력 판매 기준 마련은 4문단의 한계점인 초기 설치비 부담이나 농기계 운용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마무리의 초점이 농가 소득 증대에 치우쳐 있다.

③ 작물의 광포화점을 고려한 패널 배치와 지역사회 수익 공유를 말하지만, 4문단에서 제시된 농기계 운용의 어려움과 초기 설치비 부담을 모두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④ 농작업 방식을 조정하고 친환경 농가 중심으로 설치를 허가하자는 내용은 4문단의 한계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기술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균형 있게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일반 태양광보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농지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은 우량 농경지 훼손이나 농업 환경 보호의 문제를 고려할 때 적절한 해결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농기계 운용의 어려움과 초기 설치비 부담을 구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45번

④ ㄱ-1은 작물별 광포화점 차이에 관한 자료이고, ㄴ은 대형 농기계 이동을 위해 지지대를 3m 이상 높게 세우고 간격을 넓혀야 하며, 이 때문에 철골 구조물 설치 비용이 일반 태양광 대비 30%가량 더 발생한다는 신문 기사이다. ㄱ-1은 패널의 크기와 배열 각도를 작물별 생육 조건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설계 원리를 보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지지대의 높이와 간격을 넓혀야 하는 이유를 작물별 광포화점 차이에서 찾게 하지는 않는다. 지지대의 높이와 간격 확보는 ㄴ에서 대형 농기계 이동과 관련된 문제로 제시된다. 따라서 ㄱ-1과 ㄴ을 활용하여 “작물별 광포화점 차이에 따라 지지대의 높이와 간격을 넓혀야 하므로 설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강하는 것은 자료의 내용을 부적절하게 연결한 것이다.

① ㄱ-1은 작물별 광포화점 비교 자료이므로, 초고 2문단에서 작물별 광포화점 차이를 고려해 패널의 크기와 배열 각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영농형 태양광의 설계 원리를 보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② ㄱ-2는 지속적인 폭염 시기 평균 수확량 감소율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면 3문단에서 태양광 패널이 그늘막 역할을 하여 폭염으로 인한 작물 피해를 줄이고 수확량 안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③ ㄴ은 하부에서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가 이동하려면 지지대를 높게 세우고 간격을 넓혀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4문단의 농작업상 어려움의 원인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⑤ ㄴ은 구조물 설치 비용이 일반 태양광보다 더 발생하여 농가의 초기 진입 장벽이 된다고 설명하고, 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두 자료를 활용하여 5문단에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해결 방안으로 추가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35번

④ 윗글에 따르면 중세 국어에는 피동 접사와 사동 접사의 형태가 동일한 ‘-이-, -히-, -기’ 계열이 공존하였다. 이 때문에 동형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는 문맥에 따라 사동사로도, 피동사로도 기능하여 의미적 모호성을 유발했다. 이후 근대 이후에는 파생 방식의 생산성이 약화되고, 동형 접사로 인한 의미적 모호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게 하다’, ‘-어지다’와 같은 통사적 구성이 활발하게 쓰이게 되었다. 따라서 통사적 구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 것은 동형 접사로 인한 의미적 모호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① 파생적 피동문에서는 기존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기존 주체는 부사어로 실현되거나 생략된다. 따라서 파생 이전보다 서술어 자릿수가 커진다고 볼 수 없다.

② 파생적 사동문에서 기존 주어가 부사어로 실현되는 것은 파생 이전 서술어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이다. 사동사에서 비롯된 경우 기존 주어는 목적어가 된다.

③ 동형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는 목적어의 실현 여부뿐 아니라 부사어의 의미역도 함께 파악해야 사동과 피동을 변별할 수 있다.

⑤ 현대 국어의 이중 피동은 파생적 피동이 통사적 피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기보다, 파생적 피동에 통사적 피동이 결합하여 의미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의 일환으로 나타난다.

36번

⑤ ㉠은 “더운 물을 솟게 하여”라는 의미이다. ‘솟다’는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 자동사이고, 여기에 사동 접사가 결합하면 외부의 새로운 주체가 도입되며, 기존 주어인 ‘더운 물’은 목적어로 실현된다. 즉 ㉠은 자동사에서 비롯된 사동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파생 과정에서 강등된 부사어가 문맥상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기존 주어가 부사어로 강등되는 것은 파생 이전 서술어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① ㉡은 “나에게 부처의 기별을 보게 하시니”의 의미이다. ‘보다’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이고, 사동문에서는 새로운 주체가 주어로 도입된다. 이때 파생 이전 능동문의 주어였던 ‘나’는 부사어 ‘내게’로 실현되고, 목적어였던 ‘기별을’은 그대로 목적어로 유지된다. 따라서 능동문으로 전환하면 ‘내가 부처의 기별을 보다’와 같이 ‘내게’는 주어로, ‘기별을’은 목적어로 나타난다.

② ㉢은 “밝은 길이 보이지 아니하느니”의 의미이다. 피동문에서는 기존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따라서 피동문의 주어 ‘길이’는 능동문으로 전환할 때 ‘밝은 길을 보다’처럼 목적어로 바뀐다.

③ ㉣은 “시름을 잊게 하는 약”의 의미이다. ‘잊다’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이고, 사동문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주체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목적어 ‘시름’은 목적어로 유지된다. 즉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되어 있으므로, 결합한 접사가 사동의 기능을 하며 서술어 자릿수를 늘렸다고 볼 수 있다.

④ ㉤은 “사람이 짐승에게 먹히며”의 의미이다. ‘먹다’는 타동사이고, 피동문에서는 기존 목적어였던 ‘사람’이 주어가 되며, 기존 주체였던 ‘짐승’은 부사어 ‘짐승에게’로 실현된다. 따라서 새로운 주어의 도입 없이 기존 능동문의 주어가 부사어로 강등되어 피동의 의미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7번

③ ㉞ ‘닫는[닫는]’에서는 ‘닫-’의 받침 ‘ㄷ’이 뒤의 ‘ㄴ’을 만나 [ㄴ]으로 바뀐다. 이는 비음화에 해당하며, ‘ㄷ’과 ‘ㄴ’은 조음 위치는 잇몸소리로 같지만 조음 방법은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달라진다. 따라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하지 않는 자음 교체가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㉟ ‘꽃망울[꽂망울]’에서는 ‘꽃’의 ‘ㅈ’이 음절 끝에서 [ㄷ]으로 바뀐 뒤, 뒤의 ‘ㅍ’의 영향으로 [ㄴ]으로 바뀐다. 이 과정에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달라지는 교체가 포함된다.

② ㊱ ‘흙일[홍닐]’에서는 ‘ㄱ’이 뒤의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뀐다. ‘ㄱ’과 ‘ㅇ’은 모두 여린입천장소리이므로 조음 위치는 같고,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조음 방법만 바뀐다.

④ ㊲ ‘해돋이[해도지]’에서는 ‘ㄷ’이 ‘ㅣ’ 앞에서 [ㅈ]으로 바뀐다. ‘ㄷ’은 잇몸소리 파열음이고, ‘ㅈ’은 센입천장소리 파찰음이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달라진다.

⑤ ㊳ ‘설익다[설릭따]’에서는 첨가된 ‘ㄴ’이 앞의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뀐다. ‘ㄴ’과 ‘ㄹ’은 모두 잇몸소리이므로 조음 위치는 같고, 비음에서 유음으로 조음 방법만 바뀐다.

38번

④ ㉔의 '늦는'은 '약속 시간에 늦다'의 의미로 쓰인 동사 '늦다'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한 형태이다. 반면 ㉕의 '늦어'는 "밤이 늦어"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늦다'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형태이다. ㉕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㉔와 ㉕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동일한 형태로 실현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㉑의 '크고 있다'는 채소가 자라는 움직임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고, ㉒의 '크구나'는 키가 큰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두 단어는 형태가 같지만, 평서문에서 동사 '크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있고, 형용사 '크다'는 기본형으로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

② ㉑ '크고 있다'와 ㉓ '밝는'은 모두 동사이다. 동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있으며,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③ ㉖ '크구나'와 ㉕ '늦어'는 각각 키가 큰 상태, 밤이 늦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

⑤ ㉔ '늦는'과 ㉓ '밝는'은 모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동사의 품사적 특성을 지닌다.

39번

⑤ ㉔의 가장 안쪽에 안긴 절은 "내가 어제 사 준"이다. 이 절은 '옷'을 수식하는 관형절이며, 그 내부에서는 '사 준'의 대상인 '옷을'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가장 안쪽에 안긴 절에서 생략된 필수 성분은 '옷'과 관련된다. 그러나 전체 문장의 목적어는 '동생'이다. 그러므로 가장 안쪽에 안긴 절에서 생략된 필수 성분이 전체 문장의 목적어와 지시 대상이 동일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㉑의 전체 문장은 "우리는 그가 땀이 나게 땀었음을 알았다."이다. 여기서 가장 바깥에 안긴 절은 "그가 땀이 나게 땀었음"이고, 이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 '알았다'의 목적어로 기능한다. 따라서 전체 문장의 필수 성분을 채워 주고 있다.

② ㉑의 가장 안쪽에 안긴 절은 "땀이 나게"이다. 이는 "그가 땀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절로 기능한다. 이 절 안에는 '땀'이라는 주어와 '나게'라는 서술어가 모두 나타나 있으므로 필수 성분이 생략되지 않았다.

③ ㉒의 가장 바깥에 안긴 절은 "그가 범인임을 밝혀낸"이다. 이 절은 뒤의 체언 '형사'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이 관형절 안에서는 '밝혀낸'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생략된 주어는 수식을 받는 '형사'와 관련된다.

④ ㉒의 가장 안쪽에 안긴 절은 "그가 범인임"이다. 이 절은 "밝혀낸"의 목적어로 기능하며, 내부에는 주어 '그가'와 서술어 '범인임'이 모두 나타나 있다. 따라서 필수 성분이 생략되지 않았다.

40번

③ (가)의 말미에는 하단 타임라인을 클릭해 방송의 세부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안내가 제시된다. 그러나 이 타임라인은 '설문 결과 확인',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 '정보 확인 방법'처럼 방송 내용을 구간별로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진행자의 발화를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장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는 방송 초반에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미리 진행한 설문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화제가 시청자들의 실제 경험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② (가)는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하늘', '조약돌', '파도', '산호', '소리', '갈매기' 등의 경험과 질문을 방송 내용과 연결하고 있다.

④ (나)는 '미디어 읽기 교실 영상 클립 링크'와 '정보 확인 점검표.pdf' 첨부파일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과 관련된 추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⑤ (나)의 댓글에서는 검색어에 '반론'을 붙여 다른 관점의 자료를 찾은 경험, 첨부 파일의 점검표를 확인한 반응 등이 나타난다. 이는 본문에서 제시한 정보 확인 방법이 실제 검색 경험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41번

③ '파도'의 반응은 [A]에 제시되어 있다. '파도'는 추천 알고리즘이 틀린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의 폭을 좁힐 수 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선지에서는 이를 [B]의 반응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의 '하늘'은 환경 문제 영상을 몇 개 본 뒤 비슷한 주장만 계속 추천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특정 주제의 영상을 시청한 뒤 유사한 주장의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추천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한 것이다.

② [A]의 '조약돌'은 추천 목록에 자주 뜨는 정보가 많은 사람들

이 동의하는 정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는 추천 목록에 자주 제시되는 정보가 수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짚은 것이다.

④ [B]의 '산호'는 같은 주장이 담긴 영상이 계속 뜨는 것은 필터 버블이고, 그것을 그대로 믿으려는 태도는 확증 편향에 가깝다고 말한다. 이는 정보 환경과 수용자의 태도를 구별하여 이해한 반응이다.

⑤ [B]의 '소리'는 추천 목록이 자동으로 배열된다면 자신이 직접 고른 정보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는 추천 목록에 제시된 정보가 수용자의 직접 선택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님을 이해한 반응이다.

42번

③ (가)에서 전문가는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을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필터 버블은 사용자의 성향에 맞는 비슷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추천되어 다른 관점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정보 환경이다. 반면 확증 편향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려는 태도이다. 그런데 ③은 필터 버블을 수용자의 태도, 확증 편향을 추천 환경의 문제로 구별한다고 하여 두 개념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① 카드 1은 추천 알고리즘 이용 경험을 환기하는 내용이다. (가)의 설문 결과와 (나)의 첫 문단은 추천 알고리즘이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찾게 해 주지만 정보 이용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므로 활용 가능하다.

② 카드 2는 필터 버블의 개념과 사례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자료 1은 유사한 관점의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추천되는 화면을 보여 주고, (가)의 전문가는 이를 필터 버블로 설명하므로 활용 가능하다.

④ 카드 4는 추천 콘텐츠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자료 2의 정보 확인 점검표와 (나)의 마지막 문단은 출처, 작성일, 광고 표시, 반대 관점의 자료 확인이 필요함을 제시하므로 활용 가능하다.

⑤ 카드 5는 학교 누리집 추천 기능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나)의 댓글에서 하린은 학교 도서관 누리집에도 관심 분야 밖의 책을 함께 보여 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는 정보의 폭을 넓히는 기능을 제안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43번

③ ㉔ '보여 주기'의 '-기'는 앞말을 명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명사형 어미이다. 그러나 문맥에서 '보여 주기'는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반응을 바탕으로 관심 있을 만한 정보를 보여 주기 때문에"라는 이유의 의미를 이루며, 뒤의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을 준다"와 연결된다. 즉 '도움을 주는 대상이 되는 행위'는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찾는 데"이지, '보여 주기'가 아니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㉑ '노출될'은 '노출되다'라는 피동 표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로, 특정 관점의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시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② ㉖ '배열된다면'은 '배열되다'에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다면'이 결합한 형태로, 추천 목록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상황을 가정한다.

④ ㉕ '있는지도'의 '도'는 광고나 협찬 표시의 유무 역시 출처, 작성자, 작성일과 함께 확인해야 할 대상임을 나타낸다.

⑤ ㉔ '익혀 두면'의 '두면'은 앞말의 행위가 끝난 뒤 그 결과 상태가 유지됨을 나타낸다. 즉 정보 확인 방법을 미리 익힌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44번

④ ㉔은 서연의 화면을 다른 참여자들이 볼 수 있게 하는 화면 공유와 관련된다. 그러나 서연은 초안을 "보기 전용"으로 공유했으며, 수정할 부분은 말하거나 채팅에 남겨 달라고 하였다. 따라서 ㉔이 참여자들이 화면 초안을 직접 수정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㉑은 회의실에 접속할 때 필요한 회의 ID와 암호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서연은 암호를 잊은 지우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러 한다.

② ㉒은 회의실 초대 링크로, 회의실 접속 정보를 더 편리하게 전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서연은 지우에게 초대 링크를 다시 보내려 한다.

③ ㉔은 현재 회의에 참여 중인 사람과 참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참여자 목록이다. 민재는 이를 통해 지우가 아직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⑤ ㉕은 회의실에 들어오려는 사람의 입장을 허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게 하는 알림이다. 서연은 지우가 들어오려는 알림이 뜨면 수락하겠다고 하였다.

45번

⑤ (가)에서 민재는 줄이 긴 부스를 학생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혼잡도 표시를 넣자고 제안한다. (나)에는 이를 반영하여 "혼잡도 높은 부스 확인하기"라는 별도의 기능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체험 부스 목록 펼쳐 보기" 안에서 확인하도록 구성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바로가기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체험 부스 목록 펼쳐 보기' 안에서 혼잡도 높은 부스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민재는 제목을 "우리 학교 축제, 쉽게 둘러보기"로 하자고 하였고, 특히 "쉽게 둘러보기"를 두드러지게 하면 안내 화면의 목적이 잘 드러날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를 반영하여 해당 표현을 포함한 제목을 제시하였다.

② 하린은 첫 화면에 축제 장소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 지도를 넣고, 부스 위치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자고 하였다. (나)는 축제 장소 지도와 "부스 위치 지도 보기" 기능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③ 지우는 공연 시간표를 첫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을 두자고 하였다. (나)는 "공연 시간 확인하기" 기능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④ 하린은 체험 부스가 많으므로 목록을 처음부터 모두 보이게 하지 말고 필요할 때 펼쳐 볼 수 있게 하자고 하였다. (나)는 "체험 부스 목록 펼쳐 보기" 기능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하였다.